

5G 주파수 `28GHz` 국제표준화 첫걸음

발행일 : 2017.03.07

우리나라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할 28GHz 대역의 글로벌 표준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28GHz는 수백MHz폭을 공급할 수 있어 최적의 5G용 주파수로 손꼽힌다. 일부 국가가 반대, 국제 공조를 끌어내는 게 필수다.

국제표준화단체 3GPP는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5G와 롱텀에벌루션(LTE)을 동시에 활용하는 `난스탠드어론(NSA)`을 포함해 신규 5G 기술, 주파수 표준화 일정·방식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3.4~3.7GHz(3.5GHz)와 26.5~29.5GHz(28GHz)를 `워크 아이템`으로 제시, 국제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워크 아이템은 표준화를 전제로 규격 연구에 착수하는 정식 절차다. 3GPP 표준 선정 가능성이 높다.

28GHz 대역은 총회 워크 아이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협력, 28GHz를 현장에서 회의 안건으로 제안, 최종 승인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현우 단국대 교수는 "회의에서 워크 아이템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다"면서 "다만 3GPP가 특정 주파수를 명시할지 여부는 논의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에 따라 특정 주파수가 아닌 고주파 대역 전체가 워크 아이템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GHz를 5G 대역으로 사용하려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다. 유럽, 중국, 중동 일부 국가는 위성이나 군사용 주파수와 겹친다며 반대했다. 중국과 유럽 관계자의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가, 지역별 표준개발기구 등과 상충되는 표준안으로는 워크 아이템 승인이 어려워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G 국제 표준 주파수를 최종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9년 세계전파총회(WRC-19)` 후보 대역에서 28GHz를 제외했다. 3GPP 표준화를 통해 28GHz를 WRC 후보로 제시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3GPP 총회의 중요성이 큰 이유다.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5G 주파수 대역>

구분	대역	비고
3.5GHz	3.4~3.7GHz	초기 5G 서비스에서 고주파와 사용할 LTE 대역
28GHz	26.5~29.5GHz	미국, 일본과 28GHz 미니셔티브 결정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306000147>

LG이노텍, `유로쇼프 2017`서 ESL·조명제어 등 IoT 기술 공개

발행일 : 2017.03.06

LG이노텍(대표 박종석)은 5일부터 9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유통산업전시회 `유로쇼프 2017`에 참가해 전자가격표시기(ESL)·조명제어·위치추적솔루션 등 첨단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ESL은 진열대 앞에 부착돼 제품명·가격·용량 등 정보를 보여주는 LCD 또는 전자종이 기반의 디지털 단말기다.

LG이노텍은 전시회에서 ESL과 조명이 연계된 솔루션을 집중 강조했다. ESL에 입력된 상품정보에 맞춰 조명 컬러가 최적화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녹색 과일 정보를 입력하면 조명이 그린 계열로 바뀌어 신선도를 부각한다.

회사는 첨단 위치추적 솔루션을 공개했다. 상품과 쇼핑객 위치를 반경 50cm까지 정밀하게 감지해 제품 위치 확인과 고객 동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한 쇼핑을 돕는 솔루션으로 글로벌 유통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사물인터넷(IoT)으로 조명과 감성을 잇다... 직접 설치도 가능

발행일 : 2017.03.06

사물인터넷(IoT)을 이용, 실내 조명을 시시각각 변하는 감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립(정연규)은 LED 전문기업 린노와 감성조명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성조명은 외부 환경이나 집안 분위기, 사용자 감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색상과 밝기를 조절해준다. 거실에서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조명을 음산한 분위기로 만들어 영화 몰입감을 끌어올린다. 날씨가 흐린 날은 기분 전환을 위해 실내 조명을 밝게 할 수도 있다. 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집중력을 향상하는 조명을 선택하면 된다. 숙면을 유도하는 조명도 가능하다. LED를 이용해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립은 감성조명에 홈 Io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립의 홈 IoT 기술은 LG 유플러스에 IoT 허브를 공급하면서 검증받았다. IoT 허브는 LG 유플러스 아이오티 앳 홈(IoT@home) 서비스의 핵심 장비로 기기 간 통신을 담당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약 60만 가구에 설치되면서 가정용 IoT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연규 그립 대표는 "홈 IoT 기술을 적용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실내 조명이 바뀌는 감성조명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오디오에 적합한 감성조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립은 최근 지웨이브 기술을 비롯해 와이파이, 지그비, 블루투스 등을 통합한 허브도 개발했다. 통신 방식에 구애 받지 않도록 했다. LED 조명은 물론 기존 무선기기와의 연동할 수 있다.

감성조명에 쓰이는 린노 LED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 가능하다. 라인 조명의 경우 레고처럼 블록 형태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크기도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하도록 설계됐다. 전기 관련 지식이 없어도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표준화된 크기와 구성품으로 실내 환경에 맞게 주문 가능하다.

정 대표는 "린노와 협력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감성조명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스마트 빌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용으로도 감성조명이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2>주요국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발행일 : 2017.03.06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장기 행보에 속도를 낸다. 각국은 산업 구조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제조업 혁신을 위한 `인더스트리 4.0`을 기치로 내걸었다. 2012년에는 국가 첨단 기술 전략 10대 핵심 실행 계획에 인더스트리 4.0을 포함시켰다. 2013년부터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독일엔지니어링협회(VDMA), 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ZVEI)가 관련 프로젝트를 일제히 가동했다.

2015년에는 2기 격인 `플랫폼 인더스트리4.0` 도입으로 기존의 정책 보폭을 넓혔다. 플랫폼 인더스트리4.0은 인더스트리4.0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다시 시작하는 인더스트리 4.0`에 따르면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경제통상부와 교육과학부 주도 아래 관련 협회, 노조,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해 정책을 보완했다. 시장에 적합한 연구·상용화를 목적으로 과제도 재설정했다. 정보기술(IT) 보안의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도 강화했다.

독일은 최장 2035년까지 염두에 둔 장기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만들었다. 긴 호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실용 계획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제너럴일렉트릭(GE)을 주축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로크웰 등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쏟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독일·일본 스마트 팩토리 전략`에 따르면 GE 등 미국 기업은 기존의 사물인터넷(IoT) 연장선상에서 스마트공장을 이해한다. 당장 확보 가능한 사업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은 개방형 혁신을 주창하며 세계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2016`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신성장 전략으로 간주하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이 분야에 2020년까지 30조엔 규모의 시장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AI에 무게중심을 뒀다. 4차 산업혁명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최적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율 최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을 AI R&D 지원 정책 원년으로 삼았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1000억엔을 R&D에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국제 표준화를 목

표로 하고, 50개 첨단 활용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은 2015년에 발표한 `제조 2025(Manufacturing 2025)`를 축으로 장기 전략 실행에 들어갔다.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수준을 세계 2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길게는 2045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 경쟁력을 갖춘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주요 제조업과 공정 과정에서 지능형생산시스템(IMS)을 구축하는 등 IT·제조업 융합이 바탕이다. 중국 계획에 따라 주요 분야의 공장·작업 현장에 핵심 공정 지능화, 로봇 핵심 노동력 대체, 생산 과정 지능화 등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sgbyun@en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307000227>

스마트폰-워치 동시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 `2 in 1` 충전 상용화 목전

발행일 : 2017.03.07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무선으로 동시에 충전하는 시대가 열린다. 주요 제조사가 비접촉식(자기공명형) 무선충전 상용화에 나선다. 비접촉 무선충전은 기존과 달리 여러 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이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자기공명형 무선충전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제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다. 업계는 이들 제조사가 이른바 `2 in 1` 무선충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한다.

한 개 충전판에서 2개 이상 기기를 충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현재 주류인 접촉식(자기유도형) 무선충전으로는 불가능하다. 충전판과 기기가 1대 1로 정확히 맞닿아야만 충전되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자기공명형 무선충전은 기기가 충전판 중앙에서 벗어나도 된다. 여러 기기 동시 충전도 가능하다.

실제로 가장 최근 비접촉 무선충전 폰 개발에 뛰어든 화웨이는 스마트워치에도 같은 기술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모두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2 in 1` 충전이 가능하다. 두 품목 조합은 충전 패드의 출력 부담이 적고 이용자 편의도 높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제조사는 대부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동시 충전을 목표로 자기공명형 무선충전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자기유도형 무선충전으로는 1대 1 충전과 위치 제약 때문에 공명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제조사 행보가 애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 무선충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사 발걸음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애플이 무선충전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쟁사 역시 한단계 진화한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다.

실제로 애플 행보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애플은 최근 무선충전 표준단체 WPC(Wireless Power Consortium)에 가입했다. WPC는 자기유도형 무선충전 표준 `치(Qi)`를 주도한다. 겉으로만 보면 기존 접촉식 무선충전을 도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WPC 로드맵을 보면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PC는 차기 표준 작업 계획(Work Plan)에 원거리 충전(Charging at a distance)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된 자기공명(tuned-resonance) 기술을 이용한다고 명시했다. 애플이 최근 WPC에 가입한 것은 자기공명 무선충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해외 제조사 행보가 국내 부품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전 포인트다. 국내에는 아이엠텍, 코마텍, 우주, 오라컴, 아모텍 등 무선충전 안테나·모듈 업체가 포진했다. 맵스는 공진형 무선충전 시스템온칩(SoC) 시장에서 IDT, 온세미 등 굴지 회사와 경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애플의 무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내 부품 업계도 공진형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와 생산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307000293>

말을 문서로 바꿔주는 기기 화제

발행일 : 2017.03.08

수업을 하거나 회의 때 강의 내용이나 지시사항을 말을 받아적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누구나 한번 짚은 필기를 대신해주는 기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 이 같은 희망사항을 해결해주는 기기가 등장했다.

'타이탄 노트(Tiyon Note)라는 이 기기는 말을 녹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을 깔끔하게 텍스트로 바꿔준다. 또 말하는 사람을 구별해 필기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녹음버튼만 누르면된다. 녹음 후에는 스마트폰 전용앱에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다.

번역도 가능하다. 노트를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이태리어, 네덜란드어, 스웨던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가능하다.

휴대하기도 간편하다. 탁구공 크기이며 무게는 99그램(g) 이다. 생활방수도 된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녹음만 할 경우 55시간, 오디오를 재생하면 30시간 작동 가능하다.

개당 가격은 75달러이며 펀딩 목표액 3만5000달러를 190% 초과한 6만6396달러를 기록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308000219>

미래부, AI 연구개발 1630억원 투입...언어·시각·음성 AI 등 원천기술 확보

발행일 : 2017.03.08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163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수요가 높은 언어·시각·음성 지능 분야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 AI와 로봇 융합 사업도 시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지능정보기술 핵심 분야 AI 소프트웨어(SW), AI 하드웨어(HW), 기초기술 3개 분야에 1630억원 규모의 과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년(1106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과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언어·시각·음성 지능 분야 원천 기술을 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엑소브레인, 딥뷰, 지니톡을 개발했다. 중장기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차세대 학습·추론 등 'AI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239억원을 배정했다. 4월까지 사업단장 선정 등을 완료한다.



AI SW에 특화한 AI HW 기반도 확보한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로 대용량 AI SW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에 62억원을 투입한다. 칩·소자 단위의 머신러닝(기계학습) SW 실행을 최적화하는 지능형반도체, 뇌신경모방칩 원천 기술 개발에 196억원을 투입한다.

AI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차세대 기술 창출 기반을 만든다. 올해 618억원을 들여 뇌 구조, 활동 원리 등 뇌과학을 연구한다. 대학 산

업수학센터를 지정한다.

정부 AI R&D 결과물을 민간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한다. 엑소브레인 언어 처리의 주요 요소 기술을 산·학·연이 활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프래밍인터페이스(API) 형태로 9월에 공개한다. 법률, 특허, 금융 분야 사업화 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업계는 AI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최근 SK주식회사 C&C사업,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이 AI 기술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한 기업이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수익 모델 확보가 시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과제인 원천 기술보다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다.

정부 주도의 AI 원천 기술이 개발돼 민간 개방되면 다양한 형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R&D를 정부가 주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면서 “서둘지 않으면 AI 기술 경쟁에서 크게 뒤처진다”고 촉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성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기초·원천 기술 R&D를 수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면서 “전략 차원의 R&D를 추진,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표]올해 미래부 주요 AI R&D 투자 계획/자료:미래창조과학부

분야	과제	사업 예산
AI SW	언어·시각·음성 지능분야 원천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학습·추론 AI 기술 연구 등 AI 국가 전략 프로젝트	239억원
	가상 비서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145억원
	노인 돌보미, 무인 경계로봇 등 AI-로봇 융합 사업	100억원
AI HW	AI SW 실행 위한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62억원
	지능형반도체·뇌신경모방칩 원천 기술 개발	196억원
기초 기술	뇌과학 연구 확대	618억원
	대학 산업수학 센터 지정	15억원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309000287>

접었다 펴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 성큼... 난제 기술 `플렉시블 하드코팅` 국산화

발행일 : 2017.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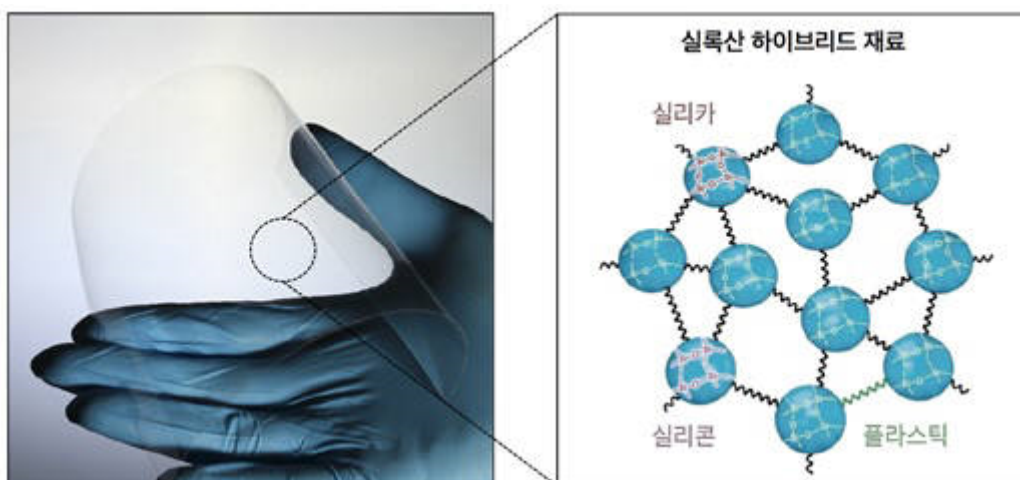


이르면 내년에 접고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한다. 폴더블 스마트폰 상용화에 난제로 꼽히던 `플렉시블 하드코팅`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하드코팅은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필름 표면을 유리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투명 필름에 이어 플렉시블 하드코팅 등 핵심 기술이 속속 정복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9일 배병수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폴더블 스마트폰 커버 필름 표면이 잘 긁히지 않으면서 접힐 수 있는 플렉시블 하드코팅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위에 유리를 덧댄다. 유리는 충격에 강할 뿐만 아니라 투명해서 선명한 화면을 보여 주기에 알맞다. 그런데 유리는 접을 수가 없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접고 펴기를 반복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다.

대안으로 주목 받는 것이 투명 폴리이미드(PI) 같은 플라스틱 필름이다.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해서 반복된 개폐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다만 유리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충격이나 흠집에 강한 성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배 교수가 개발한 소재는 바로 플라스틱 필름에 이런 특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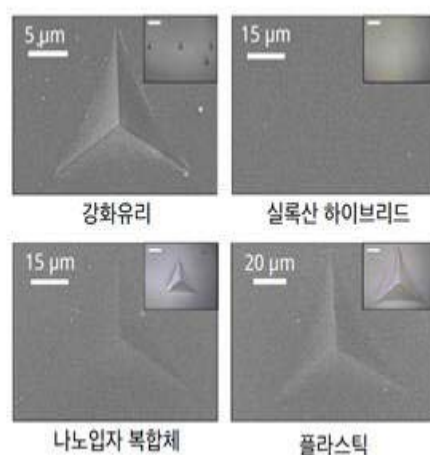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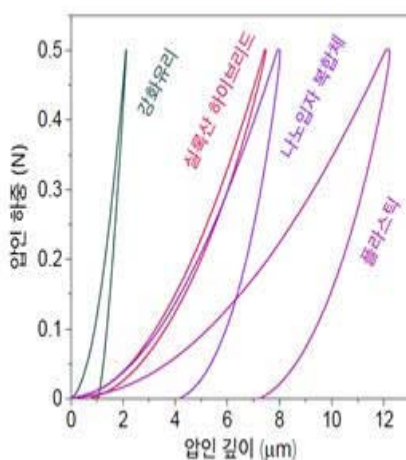


배 교수는 플라스틱 필름 표면에 유리와 같은 경도를 구현, 외부 충격에서 화면이 깨지거나 손상이 생기는 걸 예방했다. 강도와 유연성은 상반되는 성질이다. 동시 구현이 어렵다. 배 교수 연구팀은 실리카 유리, 실리콘 고무,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치밀하게 혼재된 실록산 하이브리드 재료로 하드코팅 소재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실록산 하이브리드 재료는 나노 압인 시험과 나노 굴곡 시험 등을 통해 유리와 같이 높은 강도,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성, 고무와 같은 탄성을 띠는 걸 확인했다"면서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폴딩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경도 9H를 나타내면서 1mm 이하 반경에서 20만회 이상 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면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도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제조사 요구에 맞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배 교수는 덧붙였다

플렉시블 하드코팅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구현에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투명 PI를 개발한 데 이어 투명 PI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드코팅 소재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 차세대 제품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재 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된다.



폴더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개발은 국내외 정보기술(IT)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LG전자·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레노버 등이 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배 교수는 2012년 교원 창업 기업인 솔잎기술을 설립하고 플렉시블 하드코팅 소재를 사업화하고 있다. KAIST 문지캠 퍼스 내 생산 시설도 갖춰 양산도 추진하고 있다.

플렉시블 하드코팅 소재 관련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1&oid=092&aid=0002113006>

샤오미, 스마트 운동화 공개...가격은 5만원

[2017-03-10 10:07](#)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샤오미가 이번엔 스마트 운동화를 출시했다.

인텔이 사물인터넷(Io) 기기용으로 개발한 초소형 모듈 큐리(Curie)를 탑재했고, 한번 충전으로 60일까지 걷기, 달리기, 등반의 운동 활동을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다. 가격은 299위안(약 5만2천원)이다.

9일(현지시간) 우버기즈모 등 IT 전문 외신들은 중국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 샤오미가 새로운 웨어러블 장치로 스마트 운동화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샤오미의 스마트 운동화는 '90분 울트라 스마트 스포츠 웨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이 운동화는 인텔이 IoT 및 웨어러블 기기용으로 만든 단추만한 크기의 큐리 모듈을 탑재했다.

스마트 운동화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걷기, 달리기, 오르기 등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용자들은 하루동안 움직인 거리, 평균속도, 칼로리 소모량을 정리해서 볼 수 있다. 한번 충전으로 60일까지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운동화는 '상하이 런미'라는 중국의 선수용 운동화 전문 제작 업체에서 만들었다. 미끄럼 방지 기능, 에어 쿠션, 향균 밀창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남자용은 블랙, 서프블루(에메랄드) 색이 있고 여자용은 블랙과 핑크가 있다.

샤오미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만 출시한 상태이다. 가격은 299위안으로 책정됐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1&oid=001&aid=0009096459>

LG워치 스포츠·스타일 내일 출시...최신 안드로이드 탑재

2017-03-10 10:00

스마트폰 없이 앱 다운로드 가능...출고가 31만9천~45만1천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LG전자가 11일 새 스마트워치 'LG워치 스포츠'와 'LG워치 스타일'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LG워치 스포츠는 45만1천원으로,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티탄 색상만 판매한다. LG워치 스타일은 티탄 색상이 31만9천원, 로즈골드 색상이 33만9천원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LG워치 스타일을 사면 교체용 가죽 줄과 추가 무선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준다.

두 스마트워치는 구글의 최신 웨어러블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웨어 2.0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워치 스포츠는 스마트폰 없이 자체 LTE 통신으로 음성통화, 메시지 송수신, 앱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1.38인치 원형 플라스틱 OLED(P-OLED) 디스플레이와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2100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LG워치 스포츠에는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회전식 버튼이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316L과 고릴라 글라스3로 내구성을 강화했다.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견디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심장박동 센서, 위치정보시스템(GPS)도 갖췄다.

LG워치 스타일은 두께가 10.79mm로, LG워치 스포츠의 14.2mm보다 얇다. 1.2인치 P-OLED 디스플레이와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견디는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블루투스4.2와 와이파이를 지원한다. 회전식 버튼, 프로세서, 소재 등은 LG워치 스포츠와 같다.

LG워치 스포츠와 스타일은 'LG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을 잇는 LG전자의 7번째 스마트워치다. LG전자는 이미 지난달 10일 두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웨어 2.0 탑재
'LG 워치 스포츠·스타일' 국내 출시

한지훈기자/hanjh@yna.co.kr